

호주, 국방조달체계 대개편 발표

'25. 12월 3일(수요일), 멜버른무역관

□ 개요

- 호주 정부는 국방부 조직 개편을 단행하며 기존 역량 획득 및 유지 그룹(CASG), 유도 무기 및 폭발물 처리 그룹(GWEO), 해군 조선 및 유지 그룹(NSSG)를 대체할 새로운 조달기관 (Defence Delivery Group, DDG) 설립 계획을 발표
- DDG는 2027년부터 완전한 독립기관인 Defence Delivery Agency(DDA)로 전환되며, 대형 방산 프로젝트의 일정·예산 관리 강화를 목표

□ 상세내용

- 국방조달 조직 개편 발표
 - 리처드 말스 호주 국방부 장관은 기존 3개 조달 조직(CASG, GWEO, NSSG)을 통합해 Defence Delivery Group(DDG)을 2026년 7월 출범한다고 발표
 - * CASG는 전반적인 국방 장비, 무기 및 유지 보수 담당, GWEO는 유도무기 및 탄약 분야 전담, NSSG는 해군 함정 건조와 유지 담당
 - DDG는 2027년 7월부터 독립적 조달기관 Defence Delivery Agency (DDA)로 전환 예정
 - * 민간 기업 입장에서는 입찰, 협력, 문의 절차가 훨씬 간편해짐
- 프로젝트 관리 강화 목적 및 전문성 강화
 - DDG/DDA는 국방장관 및 방산산업장관에게 직접 보고하는 구조로 개편됨
 - * 현재는 보고 체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일정 지연이나 예산 초과등의 문제가 있어도 프로젝트 후반부에서 발견되는 등의 문제가 있음
 - 또한 지금까지는 공공부문 중심이라 대형 프로젝트 운영 역량 한계가 있었으나, 앞으로는 민간 프로젝트 매니저, 산업전문가를 적극 영입해 프로젝트 전문성을 강화하고 진행 속도를 개선할 예정

□ 무역관 의견

- 민간 전문가 영입 확대는 해외 방산기업 및 기술보유 기업에 대한 협력 수요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. 특히 유도무기, 정밀기술 등 한국 강점 분야가 유망
- 또한 호주 내 복잡한 방산 프로젝트 비중이 증가하게 되면, 한국 기업이 부품, 정비, ICT, 센서 등의 분야로 진입할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

□ 정보원 및 일자

- * 2025년 12월 1일, Australia Defence Megazine (<https://www.australiandefence.com.au/news/news/government-undertakes-major-shake-up-of-defence-acquisition>)